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 친환경 사회로 전환해야”

에너지밸리포럼, ‘에너지 전환과 금융시장 과제’

재생에너지 지속 증가…태양광·풍력 시장 주도
수소연료전지·그린수소생산 등 투자활성화 전망

【에너지밸리포럼(대표 문재도)은 광주연합기술지주(대표 정성우)와 공동으로 28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한국 전력공사, 한전KDN, 협력사 및 에너지 관련 기업과 기관, 관계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례포럼은 정성기 미래에셋 대표이사 부회장을 초청해 ‘에너지 전환과 금융시장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소수 인원만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탈탄소 친환경으로 파리기후협약 이후 세계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에너지 시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에너지 전환부문 투자현황과 추이를 지역별, 부문별, 국가별로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시장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가 전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의 주요 에너지 전환정책을 설명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수립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발표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정책 컨트롤다워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지난 5월 출범했다고 소개하며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를 연료전지발전원을 분리해 수소발전공급의무화(HPS)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수소연료전지 및 그린수소생산시설등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질서 변화에 대



에너지밸리포럼은 28일 광주연합기술지주와 공동으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밸리포럼 제공

비해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위해 준비했다”며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등 역동성 확산을 위한 디지털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두축으로 안정강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구조와 에너지산업펀드 국내·외 사례와 운용 방향 투자포트폴리오 구성과 중점투자 분야 설명과 함께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생태계의 선순환 투자구조 구축을 통해 현행 발전 원가 하락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와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의 조기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에너지 신산업펀드가 K-에너지 역량제고 및 에너지 안보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에너지밸리포럼은 정부의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협력사 및 대중소기



위니아딤채가 국내 최초 보르도 스페셜 신제품을 출시했다. /위니아딤채 제공

위니아딤채, 와인룸 탑재 신제품 출시
국내 최초 ‘보르도 스페셜’ 김치냉장고 선보

위니아딤채가 ±0.1도 초정밀 정온기술과 최신 속성기능 등을 적용해 와인을 최적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딤채 보르도 스페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딤채 보르도 스페셜은 4도어 5룸으로 식품별 최적 온도, 습도 구현과 냄새취임을 방지해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오래도록 신선하게 유지시켜 주는 위니아딤채 만의 펜타(PENTA) 독립냉각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와인 보관에 특화된 보르도 스페셜룸에서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등 와인별 맞춤 저장 온도도 지원한다.

우측 상실에 위치한 딤채 보르도 스페셜룸에는 와인보관에 적합한 최적온도 제어器를 위해 스마트 컨트롤을 적용했다. 또 진동을 최소화하는 와인랙을 탑재했다. /서미애 기자

‘코로나 재확산’ 경기회복 기대감 꺾었다

기업 84% “올 4%대 경제성장 난망”
물류차질·생산량 감소 등 공급 애로

지난해 3분기 이후 호전돼 오던 경기회복 기대감이 한 분기만에 꺾였다. 수급악화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경기회복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첫 제품 출시의 영향을 받는 광주를 비롯해 전남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12포인트(P) 하락한 91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수출과 내수 부문의 4분기 경기전망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수출은 94로 전 분기(112)보다 18P 하락했고, 내수 부문은 90으로 11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최근 코로나 확산과 유가 상승을 직면한 ‘정유·석화(82)’를 비롯해 ‘조선·부품(87)’, ‘자동차·부품(90)’ 등의 비중이 낮았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특수가 계속되는 ‘의료정밀(110)’과 중국 시장 회복의 영향을 받는 ‘화장품(103)’ 등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형 일자리 첫 제품 출시의 영향을 받는 광주(109)를 비롯해 전남(102), 세종(100) 3곳이 높았고, 강원(79), 부산(80), 대구(84) 등 14곳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대한상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제동이 걸렸다”며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물류차질,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치 못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기구와 정부, 한국은행 등이 올해 ‘4%대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것과 달리, 조사 응답 기업의 83.8%는 4%대 성장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리스크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침체’(68.6%), ‘환율·원자재가 변동성’(67%), ‘금리 인상기조’(26.9%) 등을 꼽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경기회복세가 발목을 잡혔다”며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취약한 내수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함께 기업투자 촉진, 원자재 수급, 수출 애로 해소 등에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경제 프리즘

한국타이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한국타이어애포테크놀로지는 다음달 12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서류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연구개발(R&D)과 생산기술, 경영지원, 해외·국내영업, 마케팅, SCM(공급망관리) 직군 등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이끌어 나갈 이공계 인재와 글로벌 선두 업체 도약을 견인할 인문계 인재를 함께 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채용기간 동안 회사와 직무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직무 설명회 등 다양한 비대면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사 희망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국타이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되며,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성성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성적과 여학 기준을 충족하는 4년제 정규대학 이상 기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LG전자, 메타버서서 기부 캠페인

LG전자는 글로벌 기부 캠페인 ‘LG 컴 홈 챌린지(LG Come Home Challenge)’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인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등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에 ‘건강한 삶’을 주제로 LG 생활가전 체험존을 운영한다.

고객은 게임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인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에 약 21만달러(2억 5,000만원)를 기부한다.

이 기부금은 케냐, 인도, 베트남 등의 주택 및 학교·도서관 건설, 공동식수 및 화장실 등 위생환경 개선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진동저감장치 수출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해외 우주개발 선진국에 위성 핵심 부품인 진동저감장치를 수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독일 위성업체 ‘OHB System AG’와 위성에 탑재되는 적외선(IR) 검출기 냉각장치 진동저감장치(ICIA) 수출 계약을 맺었다. 진동저감장치는 위성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효율적으로 저감시켜 위성의 관측 성능을 향상하는 핵심 장치다.

위성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며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은 고해상도 영상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위성의 적외선(IR) 센서는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고감도 센서가 탑재되며, 이때 발생하는 열잡음(Thermal Noise)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저온 냉각기가 사용된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